



섬세한 인간언어로 꽃피운 문명

언어·문자는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고종석 · 에세이스트

존재가 의식을 구속한다는 것, 그리고 언어가 의식의 소산이라는 것을 큰 테두리에서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출판저널》이 제출한 질문, 곧 “언어는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주체와 객체를 뒤바꿔 “인류의 삶은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고쳐 놓을 때, 더 풍성한 답변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구속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호 구속이다. 존재가 의식을 구속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의식도 존재를 구속하며, 언어가 의식의 소산인 것만큼은 아닐지라고 의식도 언어의 소산이다. “언어가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은 바로 그만큼의 의미를 지닌다.

표현과 소통의 길을 뚫는 언어

언어는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얼른 떠오르는 답변은 그것이 문명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별에서 문명을 이룩해낸 유일한 종은 인류다. 그리고 언어를 지닌 유일한 종 역시 인류다. 물론 ‘문명’과 ‘언어’를 느슨하게 사용할 때, 개미의 군락(群落)이나 화학언어도 문명이고 언어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명은 지적 함의만이 아니라 고도의 예술적·정치적·종교적·도덕적 함의를 지닌 문명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는 개념과 소리 패턴이 결합된 기호들의 구조적 체계로서의 언어다. 그런 문명과 그런 언어는 인류에게 고유한 것이다.

문명을 건설한 인간, 생각하는 인간은 말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생각의 뭉치를 형태소로 나누고 소리의 뭉치를 음소로 나눈 뒤 이들을 이리저리 배열하고 결합하고 대응시키며 표현과 소통의 길을 뚫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언어는 대단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물론 시인은 때로 자기 마음의 미세



필기도구에 둘러싸여 작업을 하는 서기(1549년). 가우어 《문자의 역사》(새날) 중.

한 결에 꼭 맞는 표현을 모국어에서 찾지 못해 절망하고, 과학자는 정서의 찌꺼기와 중의성으로 오염된 자연언어가 마땅치 않아 자주 수화언어에 기댄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다른 동물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수화(手話)나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인간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과 비교해도, 자연언어의 정교함과 섬세함은 탁월하다. 특히 오랜 세월의 문헌사를 통해 수많은 작가들이 갈고 닦은 자연언어의 경우라면 더 그렇다.

인간은 언어를 만들어냈지만, 일단 만들어진 언어는 인간을 만든다. 우선 개념의 차원에서, 세계는 연속적이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언어는 비연속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이리저리 절단해 그 조각들을 하나의 어휘소(나 형태소)에 대응시킨다. 세계를 절단하는 방식은 다분히 우연적이지만, 절단된 세계의 조각과 특정 어휘소의 대응이 한 언어체계 속

인간의 언어는 대단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시인은 때로 자기 마음의 미세한 결에 꼭 맞는 표현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과학자는 정서의 찌꺼기와 중의성으로 오염된 자연언어가 마땅치 않아 자주 수화언어에 기댄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언어는 다른 동물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인간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해도 그 정교함과 섬세함이 탁월하다. 인간은 언어를 만들었지만, 일단 만들어진 언어는 인간을 만든다.

에서 약속으로 확립되면, 세계의 그 절단방식은 그 언어 사용자들에게 자명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우리 모국어가 지령하는 대로 자연 세계를 분단한다”는 벤저민 리 워프의 발언이 그럴 듯하게 생각되는 순간이 그때다.

물론 워프의 말은

원칙적으로 틀렸다. ‘세계관의 언어 종속성’이라는 사피어-워프 가설은 고대 이래로 인류 지성사를 흐려놓은 언어 신비주의의 세련된 형태일 뿐이다. 한국인이 ‘눈(雪)’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에스키모들이 ‘여남’ 가지로 구별한다고 해서 에스키모의 시각(視感)이 한국인보다 여남은 배 섬세한 것은 아니며, 무지개 빛깔을 셋으로 구분하는 언어의 사용자라고 해서 한국인이 구별할 수 있는 빛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지각의 범주와 인식 작용은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그것은 언어의 구조와는 독립적인 것이고 언어 이전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워프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연 언어는 서로 다른 관행을 내세우며 우리를 유혹한다.

프랑스어 사용자가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착용행위를 한국어 사용자는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장갑을) ‘끼다’ (모자를) ‘쓰다’ 따위로 구별하고, 영어 사용자가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존재의 일시적 상태와 지속적 상태를 스페인어 사용자는 *estar*와 *ser*로 구별한다. 이때 자연세계의 분단이 모국어 이전의 것일지라도, 표면적으로는 워프의 말대로 우리는 모국어가 지령하는 대로 자연세계를 분단하는 꼴이 된다.

모국어 지령대로 자연세계를 분단

외국어를 습득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자연언어마다 세계를 분단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데 있다. 한 언어에서는 하나의 어휘소로 뭉뚱그리는 개념을 다른 언어에서는 세밀히 나눌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절단의 커다란 선이 일치하는 경우다.

그러나 더 흔한 것은, 그리고 이것이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더 까다로운데, 한 언어의 어휘소가 다른 언어의 어휘소와 개념의 교집합을 만들어가며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경우다. 한 자연언어와 다른 자연언어의 어휘장은 쉽게 포개지지 않는다. 자기 모국어의 영향을 완전히 씻어내고 외국어가 지시하는 대로 세계를 분단하는 일은 그래서 아주 어렵다. 외국인이 쓴 글이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다음은 소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워프의 말을 흉내내서 “우리는 모국어가 지령하는 대로 소리를 분단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모음을 예를 들어보자. 한 모음과 다른 모음의 경계를 어디다 획정하느냐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말을 바꿔 모음과 모음 사이의 거리는 언어마다 다르다. 모음 체계 안에서 모음들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균등한 언어로는 흔히

문자 탄생과 완성의 파노라마

책으로 보는 문자의 역사



수메르
우르왕 47년에 신수메르
설형문자로 씌어진
점토판

‘문자는 관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충실한다면 문자의 역사는 새와 쥐, 개구리, 일곱 개의 활로 시작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스키타이 왕이 다리우스에게 보냈다는 이 물건들은 데이터를 언어의 중개 없이 직접 표현한 첫 문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물이 지닌 상징이 저마다 다른 문화권에서 불완전한 문자는 한가지로 해석될 수 없었다. 말(새)과 활을 바치는 쥐(스키타이인)라는 항복의 뜻인지, 새나 쥐, 개구리처럼 숨지 않는다면 활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도전의 선언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문자의 탄생과 완성은 장대한 예술적 파노라마였다. 자연물을 그린 회화문자에서 시작한 문자의 추상화 과정은 인류 기억의 진화와 다름없다. 기원전 4천년경의 수메르 설형문자는 구체적 사물을 묘사한 초기 회화문자가 물체의 전형을 간단한 선화로 나타낸 추상화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그 문자들은 데이터의 통신과 저장이라는 기능 가운데 기억보조장치 역할을

했고, 곡식의 수확량이나 가축의 수를 기록해두는 단순한 수적 데이터에 치중했다.

곧 회화문자들은 추상화, 관용화, 상용화의 단계를 거쳐 상형문자로 나아간다. 하지만 더 놀라운 진보는 기호가 소리를 표상하는 체계로 변화해 갔다는 사실이다. 수메르나 이집트인의 레부스는 단어의 음소를 나눠 각각의 그림으로 표기했다.



아시리아왕 티그라트 필레세1세의 출정 등 활약을 아시리아어로 기록한 팔면체 기둥. (가우어 《문자의 역사(새날)》 중)

예를 들면 양탄자(carpet)를 나타내기 위해 그 음소인 car(수레)와 pet(애완동물)의 그림을 나란히 그리는 것이다. 시각적 기호가 같은 언어의 소리로 환원되고, 그것으로부터 말과 문장의 관념이 읽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재구성되는 것, 고차원적 문자의 출현이 비로소 이뤄졌다.

문자의 출현은 인류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 처음에는 수확량 등 경제적 상태를 기록할 수 있었으며, 소유권이나 부채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었다. 그후에는 같은 가족, 공동체임을 표시할 수 있었고 나아가 중요한 사건과 경험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정보의 저장을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비로소 문자는 문자가 되고, 우리들은 시간을 거슬러 그 오래된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돌, 나무, 금속, 동물가죽, 나뭇잎, 뼈, 조개껍질, 점토, 밀랍, 도자기, 비단, 목면, 종이 등이 모두 그 재료가 됐다.

중국이나 이집트에서 문자를 신이 준 선물로 생각했던 만큼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 특권층이었다. 중세까지도 필경사들은 모두 수도사 같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로 제한됐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비로소 문자는 낮은 데로 임하게 된다.

문자의 역사를 전하는 책은 컴퓨터 언어의 사용이 우리를 6천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말한다. 특권층의 기억 속에 저장됐던 문자는 컴퓨터의 전자기억장치에 기억되고, 그 체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약속언어(Password)는 고대의 제례의식적인 요소다.

또 고대에 체계적인 문자가 발달하면서 구전이 평가절하되고 결국 배제돼 버렸듯 지금 우리에게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이 대단찮은 일이 됐다. 기술이 문자의 중요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그림은 다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형식이 된다.

만화나 그림, 사진으로 문자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 책들은 멕시코 정복 후에 남미에 남겨진 필사문서와 비슷하다. 1972년 지구를 떠나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파이어나이아호에는 외계의 생물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별거벗은 남녀가 인사하는 그림을 새겨 놓았다. <이현주>

· 문자의 역사/앨버틴 가우어 지음/강동일 옮김/새날
· 문자의 역사/조르주 장 지음/이종인 옮김/시공사
· 세계의 문자/세계문자연구회 역음/김승일 옮김/샘우사

프랑스어가 꼽힌다.

예컨대 프랑스어에서 전모음(前母音) /i/와 /e/사이의 거리는/e/와 /ε/ 사이의 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i/와 /ε/사이가 /ε/와 /ε/ 사이보다 멀다. 프랑스어에서 닫힌 /e/와 열린 /ε/는 뚜렷이 구분되지만, 한국어에서, 특히 젊은 세대의 한국어에서, 닫힌 /ε/와 열린 /ε/는 중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한국인은 계사의 직설법 2인칭 단수꼴인 es와 등위접속사 et를 보통 구별하지 않는다. es의 발음은 /ε/이고 et의 발음은 /e/다. 프랑스어에서는 전혀 다른 모음이다. 그걸 의식한 한국인이 es를 /ε/로 et를 /ε/로 발음해 보아도 원음에 쉬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는 모음들 사이의 경계를 다른 위치에서 확정하기 때문이다. 즉 /e/와 /ε/의 영역이 /ε/와 /ε/의 영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하는 말이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언어가 의식을 매개로 존재에 끼치는 영향의 예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경어체계와 정치·사회질서의 관계다. 예컨대 한국어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엄격하고 정교한 경어체계를 지닌 언어다. 우리말의 2인칭 대명사는 연령이나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는 연령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나 사용될 뿐, 존칭을 사용해야 할 자리엔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한국인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거나 연령적·가족적·직업적·신분적 위계를 표시하는 명사(선배님, 아버님, 국장님, 선생님, 영수씨 등)를 사용한다. 2인칭 대명사만 위계에 예민한 것이 아니다. 한국어 사용자는 메시지 수신자와 자신의 위계를 설정하기 전에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 없다.

언어로 표현되는 그 위계 질서를 우리는 다시 그 언어를 통해 내면화한다. 경어를 썼

느냐 반말을 썼느냐가 흔히 사람들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 증거다. 경어법은 연령의 위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 위계(갑오경장 이래 법률적 신분이야 없어졌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계급'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신분)를 드러내고, 그 신분적 위계는 그것을 드러내는 경어법에 의해 다시 강화된다. 한국어가 민주주의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국어에 대한 내 애정에 주름을 만든다.

인류 지식축적과 기억을 전승한 문자

문자 이야기를 할 지면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자에 대해서 난해한 형이상학을 전개하는 철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문자체계는 음성언어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자의 발명과 서기체계의 세련화가 인류의 역사를 비약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비롯한 정서법의 확립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한가지만 지적하자. 문자의 발명은 분명히 인류의 지식 축적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덕분에 인류의 집단적 기억의 용량은 무한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애달파라, 바로 그 집단적 기억의 폭증은 개인적 기억의 왜소화를 가져왔다.

기억의 전승을 문자가 떠맡게 되자마자, 인간은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굳이 머리 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인쇄술의 보급은 이야기꾼과 음유시인을 퇴출시켰다. 기계류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발명품이 그렇듯, 문자의 발명도 인간 육체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었다. ❖